

사랑과 열정으로 향기나는 도서관



글 | 남 윤 희

한국도서관협회 이사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 회장
백석문화대학교 백석학술정보관 과장
libnam@bu.ac.kr

상전벽해(桑田碧海)! 뽕나무 밭이 푸른 바다로 변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도 모르게 세상이 달라진 모습을 보고 비유한 말이다. 또한 뽕나무 밭이 바다가 될 수 있을지라도 사람의 마음은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사서로 근무한지 어느덧 20년을 훌쩍 넘겼다. 물론 뜻밖했던 그때 그 시절의 모습은 이제 찾아보기 힘들지만 아직도 처음 사서가 되어 꿈에 그리던 첫 직장의 문을 들어섰을 때의 설레임과 열정, 그리고 사서로서의 포부와 기대감은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살아있음을 느낀다.

글로벌시대 도서관 이용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이용자의 요구 만족을 최우선의 목표로 하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대가 왔다. 이러한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대학도서관에서는 이용자와 함께하는 행사를 활발하게 개최하고 있다. 우리 백석문화대학교 도서관에서는 지난 9월초 2학기 개강에 맞추어 ‘2012 New Smart 도서관 Grand Open 잔치’ 행사를 열었다. 이용자 서비스 확대에 따른 장서 소장공간의 효율성과 이용률 극대화를 목적으로 리모델링한 도서관을 이용자에게 홍보하기 위한 행사로 과월호 잡지 나눠주기와 책 셀프소독기 서비스, 자료 보물찾기 이벤트 등을 시행하였다. 이밖에도 우리 도서관에서는 도서관 목자(牧者)서비스(Library Shepherd Service), 리에종(학부전담사서) 서비스, 정보검색 컨퍼런스, FISP(연구지원제공서비스), 부활절 연체탐감 이벤트 등 우리 대학만의 특성화에 맞는 이용자 맞춤형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도서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도서전시회나 독서감상문쓰기대회, 이용자교육 등은 모든 대학도서관에서도 시행하고 있는 공통적인 행사이다. 이렇듯 도서관의 서비스가 기존의 자료보존 중심의 도서관에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으로 변화되어 앞으로는 도서관의 특성화와 이용자 중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자관(自簡)마다 특성화된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 교류의 커뮤니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필자가 초보사서 때는 전국적인 정보 공유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않았고, 인근 지역의 벤치마킹에도 한계가 있어서 도서관 실무에 따른 정보가 많이 부족하였다. 그 때 시의적절하게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가 태동하였고 필자에게는 더운 여름 마른 목을 시원하게 적서 주는 생수 같은 존재로 지금까지 함께 성장한 협의체가 되었다. 얼마 전에는 우리 협의회 회원교 모 대학에서 자료요청의 문의가 왔다. 급하게 하고 있는 업무를 잠시 미루고 회원교의 청원을 먼저 해결해 주면서 느낀 점은 초보사서 시절 필자에게 도움을 준 선

배 사서의 마음이 나눔의 기쁨을 알고 사랑의 향기를 전달해 주었음을 깨달았다. 이제는 필자가 받은 그 사랑을 협의회를 통해 나눌 수 있어서 많이 기뻐다.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는 1994년부터 전국의 전문대학도서관의 협의체로 설립을 추진하여 1996년 5월에 창립하였다. 대학간의 정보 교류 및 현장 사서들의 재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문대학도서관의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왔다. 전국의 143개 대학의 전문대학도서관 간의 협력과 공유, 교육과 학술활동을 통해 도서관의 역량 강화 및 권익 증진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되는 전문대학도서관의 대표기관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모든 회원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생각한다.

우리 협의회는 창립 총회부터 전문대학도서관 사서들의 업무교류 및 현장실무를 공유하기 위하여 사서직무교육 세미나를 추진하였으며, 학술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각 지회 세미나를 통해 전문대학 도서관인들의 참여와 각 대학도서관 간의 상호협력을 통하여 전문대학도서관의 발전을 이룰 수 있었다. 또한 우리 협의회는 2000년대에 들어서서 학술적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저작권법」 개정, 전자자원 컨소시엄 등 전문대학도서관의 위상 강화와 도서관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저작권법」 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학위논문공동대책위원회, 디지털복제·전송대책위원회에 참여하였다. 2006년에는 공공립대학도서관협의회, 한국사립대학교도서관협의회와 더불어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에 가입함으로써 전문대학도서관과 관련된 현안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4년제 대학도서관과의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008년에는 해외연수를 도입하여 해외선진 도서

관을 견학하고 외국 도서관의 우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12년 현재 다양한 세미나와 출판물 발간을 통해 대학도서관의 현안을 연구,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대학도서관연합회와의 연대로 「대학도서관진흥법」 제정을 추진하여 대학도서관의 특성과 역할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을 모색하고 있다.

작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시행했던 전문대학도서관 평가를 통해 전문대학도서관이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대학기관평가인증을 시행하고 있어서 대학
• 분위기가 많이 달라진 듯 하다. 이러한 평가와 기관
• 평가인증제로 궁극적으로는 도서관이 발전할 수 있고 학교 내에서 도서관의 위상이 향상될 수 있길 희망한다.

* * * * *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는 1994년부터 전국의 전문대학도서관의 협의체로 설립을 추진하여 1996년 5월에 창립하였다.

대학간의 정보 교류 및 현장 사서들의 재교육프로그램 개발과 활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지금까지 전문대학도서관의 교류의 장으로 발전해 왔다.

의 요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그 일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 전문직으로서의 사서의 대우와 위상 확보가 절실히 필요함을 느낀다. 그렇지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에 헌신과 노력을 아끼지 않을 때 도서관은 발전하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 본다.

상전벽해의 변화속에서 우리는 한국전문대학도서관협의회가 당면한 도서관 현안문제 해결과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한 노력, 그리고 회원교 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더욱 더 힘을 모아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 모두 초심을 잃지 말고 젊은 날의 설레임과 열정, 그리고 사랑으로 배운 나눔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기를 소망한다. ㄴ